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 ‘가을잔치’ 가는 마지막 갈림길



서재응

‘4강의 마지막 갈림길’ 2008 프로야구가 4강 순위 싸움으로 요동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4강행 여부도 사실상 이번 한 주에 판가를 난다. KIA는 이번주 2게임 차로 쫓고 있는 5위 삼성과의 대구 경기에 이어 파죽의 10연승으로 3위까지 쫓아 롯데와 광주 흥경기를 벌이게 된다. 지난주 최하위 LG, 히어로즈와의 6연전에서 3승3패를 거두는 데 그친 KIA에게 이번 주가 마지막 4강 합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팀·내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다. 롯데의 거침없는 상승세속에 한화의 추락이 맞물리면서 3·4위 팀이 뒤바뀌는 등 4강관도가 더욱 복잡해졌다. 롯데·삼성·KIA의 순위 경쟁에 ‘홀린군단’ 한화까지 가세하면서 물고 물리는 순위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외부의 움직임과 달리 식어버린 팀 타선은 좀처럼 재가 열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KIA는 ‘내외의 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반전을 위한 23경기를 남긴 KIA에게는 13승 10패가 올시즌 전체 5할 승률을 위한 승패수가 된다. 하지만 3~5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한화·삼성이 남은 경기에서 5

##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사실상 이번 주 4강행 여부 결정될 듯  
서재응 복귀... ‘승수쌍기’ 활력소 기대

남은 23경기 중 승률 7할이상 돼야 자력 진출

할의 승률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각각 0.531, 0.524, 0.504의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13승 10패를 기록하면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된다.

4위 한화와 동률을 위해서 필요한 승패는 16승 7패.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팀에 상위 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화에 8승 10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KIA는 5위로 밀려 가을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도 자력으로 KIA가 4강에 나가려면 반드시 17승6패, 0.739의 승률을 달성해야만 한다.

4강 자력 진출을 위해 남은 경기에서 7할 이상의 승률 행진을 펼쳐야 하는 KIA는 한 경기 한 경기 살아남음만 같다. 직접적인 4강 싸움의 상대 삼성·롯데와의 6연전의 결과에 따라 시즌이 일찌감치 마감될

수도 있다. 베팅글에 몰린 KIA는 엔트리 확대를 분위기 전환을 피하게 된다. 1군에 돌아오는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서재응이다. 지난 6월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갔던 서재응은 1일자로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최경환·곽정철 등과 함께 1군에 합류해 팀 4강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지난달 29일 히어로즈와의 2군 경기에서 선발 등판, 3이닝 4피안타 1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한 서재응은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지난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군 벤치를 지키며 실전감각 조절에 나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격의 부활이다. 지난주 최하위 팀들에게 2차레나 영봉패를 당한 KIA는 타선의 부침으로 힘들게 경



(2~4일·대구)



(5~7일·광주)

◇프로야구 중간순위 (01일 현재)

| 순위 | 팀    | 승  | 패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SK   | 63 | 34 | 0.649 | 0.0  | 1승  |
| 2  | 두산   | 54 | 44 | 0.551 | 9.5  | 1패  |
| 3  | 롯데   | 54 | 46 | 0.540 | 10.5 | 10승 |
| 4  | 한화   | 57 | 51 | 0.528 | 11.5 | 1패  |
| 5  | 삼성   | 53 | 52 | 0.505 | 14.0 | 3패  |
| 6  | KIA  | 50 | 53 | 0.485 | 16.0 | 1패  |
| 7  | 히어로즈 | 40 | 59 | 0.404 | 24.0 | 1승  |
| 8  | LG   | 36 | 68 | 0.346 | 30.5 | 1승  |

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하반기 6경기 타율이 0.190에 머물고 있는 최희섭의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0.417의 타율로 안정된 타격을 선보이고 있는 투구 나지완의 고공행진이 타선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KIA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4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주 성적이 2008년 KIA 한 해의 명암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김어윤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올시즌 관중 500만명 돌파 눈앞

지난달까지 437만명 동원

2008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관중 5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프로야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일정(504경기)의 81%인 407경기를 치러 437만 1천418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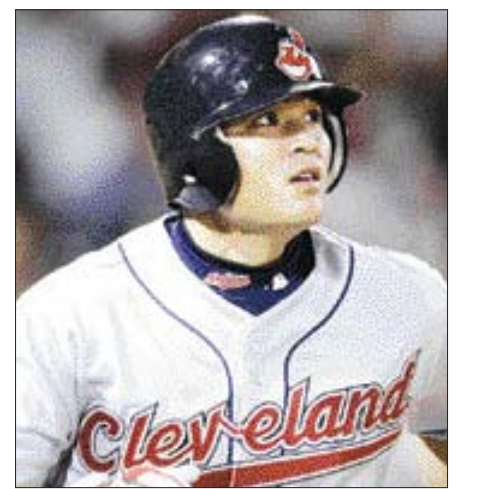
이미 지난해 총관중 410만4천429명을 훌쩍 넘었고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했던 1995년(540만6천374명)에 이어 13년 만에 500만명 시대가 재현될 게 확실해졌다.

3만석 수용규모인 사직구장에서 올시즌 16차례나 매진을 기록한 롯데는 113만3천432명의 관중을 유치, 8개 구단 가운데 독보적인 선두 질주 중이다.

또 ‘전국구 구단’ KIA의 막판 분전도 관중 폭발을 이끌 변수로 꼽힌다.

KIA는 1일 현재 4위 한화에 4.5게임 뒤진 6위를 달리고 있지만 금주 삼성, 롯데 등 4강 라이벌과 일전을 잘 헤쳐 간다면 막판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KIA는 추석 기간인 12~14일 ‘제2의 홈’으로 부르는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3연전을 벌여 관중 동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추신수 이틀 연속 홈런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중심 타자 추신수(26·사진)가 이틀 연속 홈런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뽐냈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좌익수 겸 6번 타자로 출전, 0-1로 뒤진 2회말 1사 타석에 들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전날 9회말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 극적인 동점 홈런을 친 추신수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5개를 뽑아내는 장타력을 선보이며 시즌 홈런을 9개로 늘렸다.

4회와 7회에는 2루 땅볼과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2-6으로 뒤진 8회말 무사 1, 2루에서 좌전 안타를 쳐내 후속 타자에게 기회를 연결했다.

클리블랜드는 그러나 이어진 무사 만루에서 2점을 뽑아내는 데 그치며 4-6으로 저 시애틀 홈 3연전을 모두 내줬다.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타율은 0.276(종전 0.272)로 올랐고 타점은 42점, 득점은 47점째를 올렸다.



허정무호 10일 북한전 앞두고 몸풀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북한과의 첫 경기(10일)를 앞두고 1일 오전 파주 NFC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다시 잉글랜드 대표 발탁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다시 발탁됐다.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베컴을 포함한 23명의 대표팀 명단을 1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했다.

잉글랜드는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안도라와 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 조별리그 6조 1차전을 치른 뒤 1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와 2차전을 갖는다.

베컴은 이탈리아 출신 카펠로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른 지난 2월 스위스와 친선경기(2-1 승) 때는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팀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네 차례 A매치에 모두 출전하며 종가 대표로도 재기를 알렸다.

## ‘양광테리블’ 앤서니 김 국내서 샷 대결

### 내달 2일 KPGA 한국오픈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포스트 타이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한국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5회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오픈 대회조직위원회는 앤서니 김이 10월2일부터 나올 동안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치러지는 한국오픈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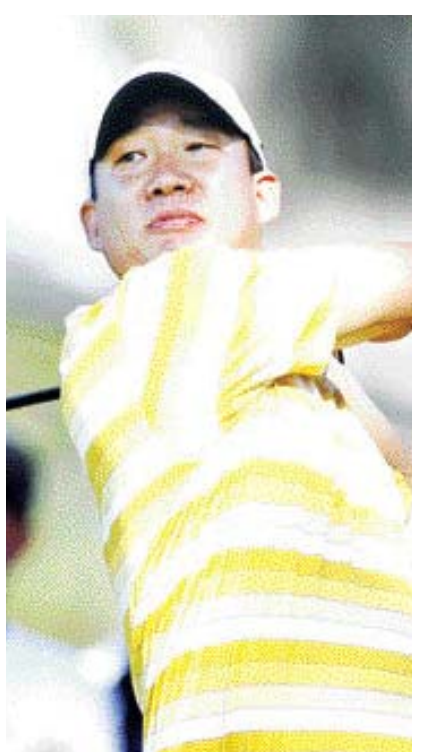
앤서니 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3

월 제주도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어 두번째이다.

그러나 당시 ‘유망주’에 불과했던 앤서니 김은 와조비야 챔피언십, AT&T내셔널 등 두차례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상급랭킹 6위를 달리고 있는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또 독특한 패션 감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언 풀터(잉글랜드)도 초청했다.

한편 대회를 후원하는 코오롱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50주년을 맞아 대폭 늘렸던 총상금을 1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최경주 4언더 부진 61위

### PGA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3R

코리안 브라더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1일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1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해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로 공동 17위에 머물렀다.

힘겹게 컷을 통과했던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6개에 보기 5개를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1언더파 70타를 쳐 중간합계 4언더파 209타로 공동 61위에 머물렀다.

8언더파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가 1타차 2위로 추격했고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비제이 싱(피지)이 공동 3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한국선수단 어제 출국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할 한국선수단 ‘팀 코리아’ 본진 86명이 1일 오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출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성일 선수단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승전 보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6일 개막해 12일간 치러질 장애인올림픽에 한국은 13개 종목에 선수 78명 등 132명이 참가, 금메달 13개로 종합 14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